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 댄다 양액 냉각기 설치로 생산성↑

군, 자원봉사자 발대식 갖고 성공 개최 기원·역량 강화 나서

무주군은 22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강우 무주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각 분야 자원봉사자 등 250명이 함께 했다.



무주군은 22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축제 홍보 동영상 시청한 후 설명을 듣고 친절 교육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 결의문을 통해 '무주와 반딧불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간의 자원봉사 경험을 살려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성공으로 이끌 것' 등을 다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는 환경보호와 여행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자신이 무주 반딧불축제의 처음과 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주민들이 다같이 만들고 즐기는 지역축제, 방문자 누구나 환경운동가가 되는 친환경축제, 무주다운으로 친환경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축제로 완성해 가자"고 말했다.

무주군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현장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들은 9일간 20여 개 봉사단체 1천여 명으로, 쑥뜸과 귀반사, 서금요법, 풍선아트 등 전문봉사 활동을 비롯해 행사장 운영과 주변 청소, 안

내, 진행 등 9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강우 무주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올해도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봉사자 여러분이 적재적소에서 자신들의 귀한 시간과 재능, 노력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등나무운동장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환경탐사 프로그램을 비롯해 갖가지 환경과 문화예술 체험과 공연, 전시 프로그램

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를 기본으로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는 축제를 만든다는 방침으로, 한종무 수목 등, 야광 조형물 등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친환경에너지(태양광 발전)로 사용하는 한편, 방문객들이 무더위를 피할 그늘막(최복미술관·예체문화관 광장)과 축제장 천원국수 부스 등에서 사용할 앞치마(130장)도 지역 내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으로 일부 제작·활용한다. 또 재활용쓰레기 수거함도 설치해 그 자재를 조형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독사 없는 무주군 만든다

고독사 예방 교육 나서

무주군은 22일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고독사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역 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복지지원 시스

템을 구축하고 고독사 사례를 분석해 지역에 맞는 고독사 예방 실천 지침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사회복지 종사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무주군 관계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는 키퍼스코리아 김석중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주제로 △고독사의 개념과 이해, △발생 현실, △예방법과 법률의 개정 과정,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 분석, △원인 과 사례 연구, △위험군과 전조 단계, △타 지역 고독사 대응 사례 등을 강의했다.



무주군은 22일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고독사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김석중 대표는 일본의 고독사 실태를 처음 세상에 알린 요시다타이치의 저서를 번역·주관하면서 고독사 개념을 한국에 최초로 소개했으며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고독사는 독거세대의 증가와 단절이 부른 고독감, 고령화의 그늘이 드리운 폐허"라며 "오늘 교육이 고독사에 대한 인식 확산과 지역사회 전체의 연대로 이어져 고독사 없는 무주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진안군, 여름철 상추 생산량 증대 긍정적 영향 미쳐

진안군은 '고온기 수경재배용 양액 냉각기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여름철 상추 생산성이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냉성 작물인 상추는 고온 환경에서 추대 발생 등 품질과 생산량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최근 폭염 등 이상기상으로 상추 시설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상추 시설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양액 냉각장치를 설치, 양액온도를 15°C로 낮가하여 작물의 뿌리활력 강화 및 추대 억제 등의 생

육 증진 효과를 보였다.

시범사업 농가는 "양액냉각기 설치로 인해 유립형 상추 생산량이 30% 이상 증가했고, 여름 재배 가능으로 연중 생산이 가능해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고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구 온난화 및 이상기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마트팜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농작물 생산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적상면 용담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완료

무주군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했던 적상면 용담경로당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2일 열린 개소식에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마을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눴다.

황인홍 군수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다양한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용, 기존 건물의 단열 성능을 개선했고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병준 용담경로당 회장은 "짜고쳐진 경로당을 보니 너무 좋다"며

"겨울에도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어졌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사업에는 용담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억 5천 5백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단열재 보강, 고효율 보일러 설치, 창호 교체 등을 진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엄마도 꿈꾸는 여자였다' 오페라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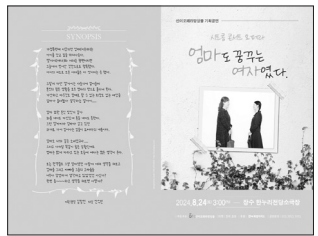
장수군이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엄마도 꿈꾸는 여자였다' 오페라 공연이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하면 된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후원하고 '선이오페라앙상블(대표 이은선)'에서 주최·주관하며 전북의 각 지역을 순회하며 창작 시트콤 오페라를 공연한다.

'선이오페라앙상블'은 클래식과 오페라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대중들이 어렵고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을 캐주얼하고 콤팩트하게 풀어나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무대를 꾸민다.

'엄마도 꿈꾸는 여자였다'는 사춘기에 접어든 딸과 엄마에 관한 이야기인 만큼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서로에 대한 공감과 따스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현대 한국 가곡의



'엄마도 꿈꾸는 여자였다' 리플릿

트렌드를 주도하는 '마중'의 작곡가 윤학준과 작곡가 권성희의 곡과 함께 하고, 출연진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로 구성된 관객들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의 묘미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최훈식 군수는 "고품격 오페라 공연으로 무더위를 잊고 감성이 풍부한 밤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훈련 실시

장수군은 22일 을지연습과 연계한 '전국 단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전 국민 참여 훈련으로 장수군 내 지정 대피소와 행정·공공기관에서 실시했으며, 장수읍 일대에서는 군·경·소방과 협력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차량 이동통제 훈련도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오후 2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릴 때 동시에 주변 대피소로의 대피가 이뤄졌으며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진행됐다.

특히 장수군 시범대피소에서는 최훈식 군수가 직접 주민과 청사 직원들과 함께 대피하며 적극적인 훈련 분위기에 앞장섰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시민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진안군은 22일 정천면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읍·면 담당 직원 등 9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7기 진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진안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진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된다.

제7기 위원회는 읍·면 대표 80명, 청소년 대표 7명 등 총 87명으로 구성,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워크숍과 함께 임원 선출과 위원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위원장에는 배병욱(진안읍 대표위원장)씨가 부위원장은 김명기(안천면 대표위원장)씨가 선출됐다. 앞으로 위원들은 △관할 구역 주민의견 수렴 △제출된 안건 논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군 발전과 주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